

장성 황룡전통시장 '제2 전성기' 연다

백종원 대표 더본외식산업개발원
활성화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시설·운영 '종합계획 수립' 착수



지난해 12월 김한중(오른쪽) 장성군수와 백종원(주)더본코리아 대표가 장성 황룡전통시장을 살펴보고 있다. <장성군 제공>

외식 산업계의 '마이더스 손'으로 불리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장성 황룡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장성군은 최근 김한중 장성군수와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 상인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룡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964년 개장한 황룡전통시장은 장성을 넘어 호남권에서도 손꼽히는 5일 시장이다.

장성군은 황룡전통시장의 시설·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6개월간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 분야별 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맡겨 추진한다.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은 황룡전통시장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콘셉트 개발과 시설 활용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상인회와 군의원의들의 질의는 기존 목조 장육의 활용 방안이 집중됐다.

기존 낡은 목조 장육을 보수해 사용하는 것과 새로 짓는 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사.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측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이어진 장육이 황룡시장만의 매력적인 콘텐츠"라며 "(새로 짓는 것보다) 황룡강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연구 용역이 황룡전통시장의 '제2의 전성기'를 여는 첫걸음

이 되길 바란다"면서 "시장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해 9월 (주)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특화음식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을 위해 꾸준히 협력해 왔다. 내년 3월엔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 개원을 앞두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군 다회용기 사용하고 축제장 투명 페트병 교환 일회용품 없는 물축제 만들기

장흥군이 일회용품 없는 물축제 만들기 앞장서기 위해 나섰다.

장흥군은 오는 8월 4일까지 열리는 물축제 기간 동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 사용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흥 물축제는 대한민국의 여름 축제로 떠오르며 매년 수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대규모 행사가 됐다.

장흥군은 환경을 지키는 축제를 위해 올해부터 행사장 내 먹거리부스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와 협력을 통해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축제장 내 투명 페트병 교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흥군은 지역사회와 관람객들에게 쓰레기를 줄이며 자원을 다시 쓰는 기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물축제 행사장 내 다회용기 사용은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친환경 경영 실천에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시지역 중학교 2학년생 30명이 나주시의 지원을 받아 25일부터 미국 메릴랜드주 세인트 앤드류 어포슬 스쿨에서 열리는 어학연수 참가를 위해 출국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여름방학 초·중생 '어학연수' 지원

중학생 30명 미국 17일간 연수

나주시가 여름방학 기간 글로벌 인재 육성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 초·중생 미국 어학연수와 국내 영어캠프 참가를 지원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역 중학교 2학년생 30명이 지난 25일부터 미국 메릴랜드주 세인트 앤드류 어포슬 스쿨에서 열리는 어학연수에 참가해 견문을 넓히고 영어 학습 능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다음달 11일까지 17일간 열리는 이번 연수는 현지 학생들과 합동 수업, 홈스테이, 명문대학·명소 탐방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수 경비는 1인당 1100만원으로 일반학생은 자부담을 제외한 550만원,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수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했다.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내 영어캠프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동신대학교 기숙형 영어 캠프에서 진행한다.

학급·수준별 반을 편성해 체육·미술 등 예체능 과목을 영어 수업과 접목해 특색있는 교육 방식으로 구성된 학생들의 학구열을 높였다.

영어캠프 교육비는 1인당 105-150만원으로 일반학생은 자부담 45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전액 시비로 지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 인도네시아 70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

자카르타 국제식품박람회서 MOU

함평군이 지난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에서 7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을 이뤘다.

함평군에 따르면 자치단체 단독으로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 박현정 대표의 인도네시아 업체 J & I와 30만 달러, 이기준 대표의 미래유통과 40만 달러 등 총 70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한국통합관에서 진행됐다.

함평군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단계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고품질 수출 경로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베트남, 홍콩, 프랑스 등 개최 박람회에 참가해 함평군의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해외시장 판로 개척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군 농업 유통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해외시장 유통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고품질의 함평농특산품(H-푸드)이 해외 시장에 널리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제6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위촉식

화순군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6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위촉식'을 열었다. <사진>

아동·청소년 의회는 군정의 정책 결정 과정에 권리 주체인 아동·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화순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6대 아동청소년 의회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됐다.

위촉식에서는 위촉장과 의원 배지 전달과 제6대 청소년의회 추진 방향 안내에 이어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와 협업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청소년 의장단 선출에선 의장 후보자 3명이 경합했고 미리 준비한 자료를 이용해 공약과 포부를 발표할 때는 많은 관심과 함께 열기가 넘쳤다.

제6대 아동청소년의회는 의장단 선출 후 ▲교육문화(9명) ▲안전복지(7명) ▲아동인권(6명)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촉식 자리에서 구부규 화순군수는 "화순군 아동청소년들을 대표해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발굴된 다양한 정책들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밝히는 행복한 화순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특히 청소년 의장단 선출에선 의장 후보자 3명이 경합했고 미리 준비한 자료를 이용해 공약과 포부를 발표할 때는 많은 관심과 함께 열기가 넘쳤다.

제6대 아동청소년의회는 의장단 선출 후 ▲교육문화(9명) ▲안전복지(7명) ▲아동인권(6명)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촉식 자리에서 구부규 화순군수는 "화순군 아동청소년들을 대표해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발굴된 다양한 정책들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밝히는 행복한 화순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강진군 공직자 생성형 AI 업무 활용 실무교육

강진군이 한발 앞선 4차산업 기술로 공직자 업무 혁신을 이끌고 있다.

강진군은 최근 공직자들이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해 행정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업무 활용을 위한 공직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진군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외부 전문가인 미래채널 MyF의 황준원 대표가 맡아 진행했으며, 생성형 AI의 종류와 특징, 실무 활용 예시, 저작권과 소유권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공직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공직자 250명이 참석해 챗 GPT 등을 활용한 업무 환경 변화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챗 GPT를 활용한 문서 작성과 이미지 문

서화, 영상 기억하기 등의 실무 예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챗 GPT는 문서 작성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작성한 보고서나 공문을 자동으로 요약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를 활용해 보고서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필요한 이미지를 직접 생성하고 편집하는 방법도 소개되고, 음악 생성 AI인 Suno를 활용해 군 홍보 노래를 제작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가 크게 향상됐으며,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